

[목회자 모임]  
생명의 사역(요8장)

2020. 2. 28. 이현래 목사

오늘은 요한복음 8장이다. 너무 유명한 장이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를 데리고 와서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요8:5) 이런 문제였다. 그들의 의도는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만일 죽여야 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고 별거 없다고 할 것이고, 살리라고 하면 저 사람은 모세의 율법을 무시한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두 가지 함정을 놓고 데리고 왔다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다.

율법은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악을 제거하라고 되어있다. 그 사람들의 말은 율법으로는 맞는 말이다. 그런데 이 여자는 살아야 될 사람인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죽어야 될 입장에 놓여 있다. 이럴 경우 율법이 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가? 아니면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버려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런 경우에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가지신 분이라는 말을 한다. 공의도 버릴 수가 없고, 사랑도 버릴 수가 없다는 말이 되는데, 여기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공의를 살릴 것인가? 아니면 사랑을 베풀 것인가? 이런 문제가 된다. 아주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자유주의적인 사람들은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말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다른 말씀을 해서 이 여자를 살리고 율법도 폐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야기다.

이것은 마치 솔로몬 시대에 한 아기를 가지고 서로 자기 아기라고 하다가 솔로몬에게 재판을 받으러 왔던 두 여자 이야기와 유사하다. 한 사람은 생모였고, 한 사람은 가짜였다. 같이 잠을 자는 중에 아기가 뒤바뀌어지는 일이 생겼다. 서로가 자기 아기라고 하는데, 두 사람의 말만 듣고서는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은가?

솔로몬이 지혜를 발휘해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칼로 똑 같이 반절씩 나누어 가지라고 판결을 했다. 그랬더니 생모는 죽을상이 되어서 ‘아닙니다. 저 아기를 저 사람에게 주십시오.’라고 했다. 가짜 엄마는 ‘재판장님 참으로 옳은 판결이십니다.’라고 했다. 솔로몬은 그것

을 보고 누가 진짜인지 재판을 해주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솔로몬의 지혜를 말하기 위해서 이런 예화를 들었던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지금 비슷한 문제에 부딪혔다. 율법이나? 생명이냐? 이런 문제에 부딪혔다.

요한복음은 아주 계획적으로 쓰여진 책이다. 차례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 질서 정연하고 조직적이다. 제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요1:14)라고 말했다. 이것은 요한복음 전체의 총론이고, 또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다.

새 언약, 예레미야로 시작된 새 언약은 “**내 법을 그들의(저희) 생각에 두고 그들의(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렘31:33, 히8:10)는 것이다. 이것이 신약이고 새 언약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법이 사람 속에 있으며, 그 마음이 사람 속에 있겠는가? 이것이 문제다. 성경에는 이런 문제가 많다.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가 많은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직도 명백한 대답이 안 나오고 있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요1:14) 이 말은 “**내 법을 그들의(저희) 생각에 두고.**”라는 이 말이다. 이것은 창세기로 돌아가야 되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어졌다. (창1:26)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어졌다는 이 말씀의 성취다.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형상이고 하나님은 실재이기 때문에 실재이신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뜻이다. 연합이 없으면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하나님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한다. 비슷하게 생겼다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사람이 잘 노력하면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비슷하니까 좀 고치면 안 되겠는가? 이것은 비슷하다는 말이 아니다. 형상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1:26)라고 하였다.

전구가 불이 켜질 때는 전등이지만 불이 나가고 나면 유리만 남는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그와 같다. 흙은 열매가 아니고 나무도 아니다. 씨를 심어 놓으면 흙에서는 나무가 나고 열매가 열린다. 그리고 열매를 거둬가고 나면 다시 흙만 남는다. 이와 같은 것이다. 형상과 모양이 그런 것이다.

예수를 만났던 사도들은 자기가 본 면에서 예수를 증거 하려고 복음서를 썼다. 요한은 요한 자기가 본대로, 아는 대로 예수를 우리에게 소개한 것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다. 사람들은 요한복음

은 예수의 신성을 이야기 하려고 한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다. 신성이 있기는 있지만 그것은 예수 자신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것이 지금도 논쟁거리고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2장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말이다. 이것은 잔치 집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잔치집의 그리스도, 인생 속에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포도주가 있는 잔치집이 된다는 말이다.

3장에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가?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사람들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지 아무도 모른다. 참 이상한 일이다. 분명히 써있는 데도 그것이 안 보이는지 모르겠다. 내 경험을 봐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거듭나는 것인지?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인지? 니고데모도 그것은 알았다. 그것을 알았는데 아니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는 동문서답을 하다가 끝났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다.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4,15)는 이 말씀이 분명하게 있다. 놋 뱀을 분명하게 보면 된다는 말이다.

민수기에서는 놋 뱀을 보면 독사에 물린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잘 모른다. 왜 놋 뱀을 보았는데 독사의 뱀이 빠져나갔겠는가?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 말씀이 여기서 인용되었다. 독이 없는 뱀이신 그리스도를 봐야 사탄이 주입해 놓은 독이 없어진다는 그 말이다. 사탄이 주입한 독이 없어지면 그 사람은 새로 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거듭난다는 것이 신비로운 것이 아니다. 예수를 보면, 예수 안에서 우리의 운명을 발견하고, 그분의 실체를 보게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정도로 하겠다.

그 다음에 가면 사마리아 여자가 예배하는 곳을 찾는다는 말이 나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예배한다, 저렇게 예배한다고 말씀하지 않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요4:21)고 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을 이야기했다.

지금도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하면 좀 신령한 예배를 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예배를 하

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에 굉장한 신경을 모두 쓰고 있고 예배학이라는 분야가 있어서 그것을 공부하고 있다.

천주교회에서는 미사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번에 코로나 19 때문에 천주교에서 맨 먼저 이백몇십년 동안 한 번도 중지하지 않았던 성당 미사를 중지한다고 발표했다고 한다.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아직도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는가? 죽을 것이 무서워서 예배를 안 드린다는 말인가?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신앙이 참 좋은 사람들이고 충성심이 강한 사람들이지만 답답한 일이다. 그래서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다. 너희들은 예배를 드리고 너희들 때문에 바이러스가 퍼지면 우리는 죽으라는 말이나? 이런 말이 되지 않겠는가. 예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진퇴양난이 되었다.

그것을 방송에서는 보통 사람들은 헌금 때문에 그렇다고 평가하였다. 그 큰 교회가 주일이면 헌금이 엄청나게 들어온다. 한 달간이라도 헌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큰 교회가 어떻게 유지되겠는가하고 해석했다. 그런 것도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보다도 예배, 예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 아주 큰 문제가 되어 있다.

전에도 한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장모님이 우리 때문에 대구로 이사 오셨다. 4대째 장로교 집안이었다. 사위가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와서 볼 게 아닌가? 와 보니까 자기가 볼 때는 예배가 아닌 것이다. 그래서 고민이 되었다. 사위가 목사인데 장모님이 안 나올 수도 없다. 고민 끝에 1부 예배는 다른 교회에서 드리고, 2부에는 말씀을 들으러 가자고 결정해서 두 가지 일을 하루에 하시는 그런 재미있는 일이 발생하였다.

대대로 내려오던 유대의 의식이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요즘도 인터넷으로 방송 중계를 하는데 보니까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19가 왔다고 예배를 안 드리다니 죽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가? 또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은 코로나19도 걸리지 않고 다 낫게 된다는 해석도 있다. 광\*문 집회에서도 그런 말이 노골적으로 나왔다. 여기에 온 사람들은 병에 안 걸린다. 병에 걸려도 다 낫는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예배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되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참 딱한 사람들이다. 강대국에서 침략하면 쓸 만한 사람들은 다 데려가고 별로 필요가 없는 사람들만 남겨놓았다. 그 사람들은 외국인들이 침략해 들어와서 혼혈이 된 것이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저런 혼혈족과 상종할 수 없다고 해서 예루살렘에 못 오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도 성전을 지어 놓고 예배를 하자

고 해서 그리심 산에 성전을 지어놓고 따로 예배를 했다.

이 여자에게 문제가 생겼던 것인지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했다. 물론 예수님이 목이 말라서 물을 먹으러 갔다가 이 여자를 만났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요4:20)하고 물었다. 어디서 예배를 해야 진짜 예배이냐고 하는 물음이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신령)과 진리(진정)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요4:21,23)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실재로 예배하는 것이지 이 산에서나 저 산에서나 이런 방식으로나 저런 방식으로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개발해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사람들은 그럴싸한 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참 신성하다, 감동적이라고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 어떤 모양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18:20) 두 세 사람이 모이면 무슨 의식이 있겠는가? 아무 것도 없다.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있고, 수천 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고 난리를 치는 데도 하나님은 아무 감동도 받을 수 없다고 할 수도 있다. 구약에서도 벌써 그런 말이 나왔다.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상한 심령을 원한다(시51:16,17)는 말이 나왔다.

한 번 의식에 젖은 사람은 그것을 빠져나오기가 참 어려운 모양이다. 어려서부터 그것이 습관이 되고 의식화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뭔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것을 목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목사들과 교회가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다.

아들로 예배한다. 아들이라야 예배가 된다. 그분을 표현하는 것이 아들이다. 아들이라는 말은 아버지의 계승자고 후계자고 표현이다. 발가락이 닳았다고 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생명을 계승할 자고 표현할 자다. 아버지의 생명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이지 무슨 의식으로 아버지 생명이 표현해지겠는가? 어떤 의식도 그것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처음부터 예배라는 개념을 버렸다.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화답하고 형제가 서로 교통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무슨 거창한 의식을 행한다고 기뻐하시겠는가? 우리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보고는 이상하다고 한다. 아무것도 없고 이상하다고 한다. 누가 이상한 것인지 모를 일이다. 눈이 하나만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가 눈이 두 개 있는 사람을 만나면 이상하게 보이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비정상적인 세계에서 오래 살다보면 정상적인 것이 이상한 것이 된다. 아마도 공산주의 세계에서 살다가 자본주의 세계에 오면 다 비정상적으로 보일수가 있다. 또 자본주의 세계에 살다가 공산주의 세계에 가면 그것도 다 비정상적으로 보인다. 사람들은 어떤 것에 습관이 든다. 습관이 되면 그것이 의식화가 된다.

이 여자에게 하신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셨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그것도 더군다나 성전에서 그렇게 하셨다. 이것은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약간의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일부러 성전에서 하시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할 수도 있고, 안식일에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다. 오늘 안식일이니까 내일 오라고 할 수도 있는 일인데, 굳이 안식일에 하신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것을 통해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날이 하나님께 너무 만족한 날이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복을 준 날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하신 일을 다 마치시고 너무 만족하셔서 사람에게 복을 주고 참여하라고 한 것이다. 이것을 일로 생각하면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난 후에 안식하셨다. 사람 자체가 지어졌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만족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람이라는 것에 만족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만족에 참여하는 것이다. 안식일만 지킨다고 그 안식일에 참여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이 안식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안식일을 아무리 지켜봤자 하나님의 창조에 만족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쉬게 못한다. 자녀가 와서 ‘아버지, 왜 나를 낳았습니까? 나는 머리도 나쁘고 공부도 못하고 왕따고 왜 나 같은 사람을 낳았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과 같다.

아담은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겠는가? 그것은 불만이 있었다는 말이

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까? 왜 나를 천사처럼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다. 사람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까? 왜 사람은 이렇가? 왜 인생은 이렇가? 이러면 이것이 바로 안식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면 다른 것을 먹어야 되는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을 못 먹으면 다른 것을 먹게 된다.

<대지>라는 소설에 먹을 것이 전혀 없으니까 흙을 끓여 먹는 장면이 나온다. 흙을 끓여먹으면 살겠는가?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물이 없어서 먹지 못할 물을, 그것도 수십 Km를 가서 길어서 먹고 있다. 그 물을 먹고 아이들이 죽는다. 누런 흙탕물이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물을 보내자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으려면 그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아야 한다. '왜 이런 물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왜 이런 물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해야 할 형편이다. 그런데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배터지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왜 내 인생은 이러냐고 하고 있으니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인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다.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잠을 못 자게 하는 것이다. 내가 괴롭고 불만스러우면 옆에 있는 사람을 잠을 못 자게 한다. 불면증 있는 사람들이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옆 사람이 코 골고 자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못 견뎌한다. 자기 혼자 같으면 괜찮은데 옆에 사람은 잘 자고 있으면 더 못 견딘다. 불행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 곁에 있을 수가 없다. 심통이 나서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은 좋다고 주무시려고 하는데, 내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무실 수가 없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6장에 가면 양식, 오병이어로 오천 명을 먹였다는 말이 나온다. 굶주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었다. 이것도 논란이 많은 말이다. 어떻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천 명이 먹고도 부스러기가 열두 광주리가 남겠는가? 어떤 소자가 자기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다 내놓아서 먹고 남았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다.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다. 직접 현장에 가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고, 현장에서 먹었더라도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다.

예수님이 우리 양식이 되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서 알려지게 된다. 주님이 우리 양식이 되면, 내 인생의 양식이 되면, 방금 말한 대로 안식일을 범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만족하기 때문이다. 만족하면 남는다. 배부르면 다 못 먹고 남는다. 요즘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처리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 양식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

7장에 가면 생수가 나온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요7:37,38)고 하셨다. 밥 먹었으면 물 먹어야 한다. 밥 먹고 물 안 먹으면 걸려서 안 내려간다. 그것뿐 만 아니라 사람은 물 안 먹으면 죽는다. 밥을 안 먹고는 살 수 있는데, 물을 안 먹으면 열흘을 못 산다고 한다. 명절은 즐거운 날인데, 물이 없으면 즐거울 수가 없다. 항상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분이 내 생명이 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오늘은 8장이다. 이 여자의 문제는 율법이나? 생명이냐? 이런 문제이다. 이 여자를 살릴 것이냐? 죽일 것이냐? 이 문제다. 율법 때문에 죽일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살려야 되느냐? 이런 문제다. 교리 때문에 죽여야 되느냐? 교리를 무시하고 살려야 되느냐? 이런 문제와 똑같은 문제다.

카톨릭에서는 제도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다 죽였다.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 역사의 기록에 로마제국이 기독교인을 박해해서 죽인 것 보다 오히려 교회가 죽인 사람이 더 많다고 한다.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어느 책에 그렇게 쓰여 있다. 개신교는 그것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다. 성전에 드리는 면죄부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교리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안 된다고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후에도 역시 사람을 죽였다. 왜냐하면 교리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삼위일체 교리에 위반되어서 죽은 사람이 많다. 신성을 모독했다면 죽여야 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 충성스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교리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 교리로 사람을 지으신 것이 아니다. 교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다. 아주 중요할 수 있지만 생명보다 더 중요하진 않다.

그러나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이 많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이다. 쇠기둥에 매달아 놓고 불을 지르면서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처형한다고 하면서 죽였다. 장작더미 위에 묶어 놓고 불을 지르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처형한다고 하였다. 내가 너를 죽인다고 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죽인다고 하였다. 너는 죽어야 된다. 너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니까 있으면 안 되니까 죽어야 된다.



다고 하여 죽인 것이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없다. 그 사람이 무슨 악을 행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전통을 위반했거나 교리를 위반했다면 그냥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자라고 해서 죽였다는 말이다. 그것이 얼마나 많았으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들, 그 후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건너갔는데, 그들이 헌법을 만들 때 정교를 분리하는 헌법을 만들었겠는가.

거기에도 사이비 종교와 같은 것들이 많다.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도 많이 있다. 그것을 법으로 절대로 금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를 금지하면 다 금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교를 주관하기 시작하면 다 하는 것이지 어느 것만 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다. 이번에 신\*지가 나오니까 신\*지를 해산시키라는 사람들이 나온다. 신\*지 때문에 큰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정부에 종교의 관할권을 맡기면 모든 종교를 다 맡기는 것이다. 어느 하나만 맡기겠는가? 미국에서는 심지어 사탄 종교도 있다고 한다. 사탄종교도 정부에서는 손을 대지 않는다. 법은 손대지 않는다. 종교적인 나라가 된다면 참 좋을 것 같다. 우리나라가 기독교를 국교로 한다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월권을 행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빙자해서 악을 행하게 된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

무엇보다 생명이 제일이라는 것을 알면 간단한데, 너무 중요한 것을 배워 놓으니까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다. '생명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 어쩔 수 없더라도 사람을 살려야 한다.

율법이나? 생명이냐? 당시 유대인에게는 이런 문제였다.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요8:5) 여기서 두 가지 사람이 나올 수 있다.

율법에 어긋나면 되겠는가? 율법대로 해야지. 그 율법이 어떤 율법인데.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직접 주신 것이 아닌가? 손가락으로 돌 판에다 새겨주신 것이 아니냐? 이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다. 율법의 일점일획이라도 가감하면 안 되고, 사사로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념이다. 그러면 할 수 없지, 저런 여자는 돌로 쳐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악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다.

또 그것을 허용해 놓으면 누구나 그렇게 할 것이 아니냐? 그것도 안 될 일이다. 국가적인

입장에서 사회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을 그냥 용서해도 또 안 될 일이다. 금지하기는 금지해야 하는데, 이것을 율법으로 금지하면 사람이 무자비해지고, 정부의 힘으로 이것을 금지하면 폭력이 돼버리니까 진퇴양난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아주 현명한 말씀을 하셨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요 8:7) 아기를 반으로 갈라서 돌로 나누라는 말이나 이 말이나 같은 말이다.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치라 했더니 모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둘씩 다 떠나고 없더라는 것이다.(요8:9) 그래서 예수님께서서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요8:10,11)고 하고 보냈다는 이야기다.

살리고 싶으면 무슨 방법이라도 살릴 방법이 있는 것이다. 약장에 약이 많다. 그 약속에는 독약도 있고 달콤한 약도 있다. 왜 의사가 필요하고 약사가 필요한가? 사람을 살리는데 선별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아무것이나 먹으면 죽는다. 부자 같은 약도 참 효력이 좋은 약이지만 잘못 먹으면 죽는다. 인삼도 그렇다.

옛날 사약 재료가 청산가리를 먹여 죽이는 것이 아니고, 무슨 남생이 같은 것을 먹여서 죽이는 것이 아니다. 인삼, 부자, 반하, 이 세 가지를 끓여 먹이면 사람이 바로 죽는다고 한다. 인삼도 고가 약이고, 부자도 고가 약이다. 아주 비싼 약이다. 죽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약이다. 그런데 그것을 먹으면 사람이 죽는다. 고급사형이다.

아무나 사약을 받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대신 급에만 특별히 내리는 은사고 은혜다. 그래서 그것을 받는 사람은 정장을 하고 나와서 깔아 놓은 방석 앞에 북향사배를 한다. 임금이 자기에게 은혜를 내려주었다고 절을 하고 마시는 것이다. 절을 하지 않고 마시지 않으려다가 억지로 먹여 죽은 폐비 윤씨가 있다. 죽어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죽는 것이다.

북쪽으로 네 번 절을 한다는 것은 임금에게 절하는 것이다. 내게 이런 명약을 주어 고통 없이 죽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것이다. 먹으면 즉시 죽는다. 그런데 그 여자는 억지로 입을 벌려 먹이니까 피를 토해서 그것이 금산의 피다. 그런데 그것을 친정어머니가 차곡차곡 접어서 감춰 두었다가 아들 연산군이 보위에 오르니까 그것을 가져다 내어놓았다. 연산군은 거기서 돌아서 미치광이 같이 되었다. 죽어도 잘 죽어야 될 이유가 그런 것에 있다.

그런데 살리고자 하면 무슨 방법으로든 살릴 수가 있다. 죽이려고 하면 무슨 방법으로 해도 죽인다. 남이 장군이라고 유명한 장수가 있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용맹이 뛰어나서 임

금이 아주 총애를 했다. 그런데 그것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남이 장군이 쓴 시를 글자를 위조해서 역적의 시를 만들었다. '남아 이십에 미평국이면 후세에 수처 대장불 이요.'하는 말이다. 남아가 이십에 나라를 평정하지 못하면 후세에 누가 그를 알아주겠느냐? 대장부라고 생각하겠느냐? 그런 뜻이다. 기개가 높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평'자 하나를 바꿔서 '미득국'이라고 만들었다. 남아이십에 미득국이면, 남아 이십에 나라를 얻지 못하면 후세에 누가 그를 대장부라고 하리요. 이렇게 바꿔서 임금에게 내놓았다. 역적이다. 그래서 그 아까운 인재를 죽였다고 한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는 살수가 없다. 무슨 방법을 써서 죽이게 마련이다.

약이 많지만 의사와 약사가 필요한 이유는, 국가에서 자격증을 줘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함부로 못 쓰게 하려고 준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가진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왜 성경을 주었는가?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주었다. 그러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성경은 모두 다 어떻게 하면 이 빛나간 인생을 살릴 수 있겠는가? 이 빛나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죽은 사람들이다. 멸망이라는 말은 쓸모가 없게 되어버렸다는 말이기 때문에 목숨은 붙어 있지만 죽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에게 쓸모없기 때문에, 지으신 이에게 쓸모없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주인에게 쓸모없으면 쓰레기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멸망이다.

제주도 고물상에 가면 아주 좋은 물건들이 나와서 나는 아까웠다. 이런 좋은 물건들을 왜 버렸나 했다. 그런데 주인들은 쓸모가 없으니까 버린 것이다. 고물상을 하려면 그런 것을 잘 구별해야 된다. 돈 될 것은 돈 될 것으로 구별해야 그것이 알짜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쓰레기로 알면 값이 없는 것이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주인에게 쓸모없으면 쓸모가 없는 것이다. 지으신 이에게 쓸모없으면 쓸모없는 것이다. 사람은 그냥 목숨만 있으면 사는 것이 아니고, 용도가 분명해야 사는 것이다. 만일 군인이 용도 외에 다른 일을 했다면 그것은 죽는 것이다. 군인의 용도 이외에 다른 짓을 했다면 죽는 것이다. 그것은 군인이 아니다. 군인은 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그 군인이 용도 이외로 움직이면 사형이다.

멸망이라는 말은 용도에 관계된 문제이다. 하나님께 지음 받았으면 하나님께 쓰여야 된다.

목적이 있으니 만들었는데, 그 목적에서 이탈되었으니 죽은 것이다. 성경은 왜 있는가? 이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다. 그러려면 육신도 살아야 한다.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요1:14)라고 했다. 육신이 없으면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없다. 육신은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육신이 없으면 안 된다. 육신의 생명은 영적인 생명과 떠날 수가 없다.

일단은 영적인 생명은 그만두더라도 육신의 생명을 살려야 된다. 너는 이제 영으로는 살고 육으로는 죽어라고 하고 장작더미위에 불을 지르면 그것이 잘한 일인 것 같지만 그것이 잘한 것이 아니고 악마가 하는 짓이다.

어떤 목사가 기독교 최악사라는 책을 썼다. 간단한 책이 아니고 상하 두 권의 굉장히 두꺼운 책이다. 2천년동안 기독교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써 놓았다. 병주고 약주고 그런 셈이다. 서투른 의원은 병주고 약 준다. 약 때문에 약의 화를 입고 죽는다. 약 때문에 죽는다. 치료를 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었으면 살 것인데 치료한답시고 서툰 사람이 잘못하다보면 죽는다.

옛날에 동네마다 라디오 방이 있었다. TV가 없고 라디오만 있던 시절이다. 소리가 나지 않아서 고치려고 가면 잘못하면 더 못쓰게 만들어버린다. 뜯어서 자기 댄에는 고친다고 고쳤는데 더 못쓰게 만든다. 그런데 그것이 들키면 안 되니까 즉석에서 고쳐주는 법이 없고, 놔두고 가라고 한다. 하루나 이틀 있다가 찾아야 한다. 왜 그런가? 잘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맡긴 사람이 알면 안 되기 때문이다. 바쁜데 지금 고쳐 달라고 해도 놀면서 안 고쳐주고 내일 오라고 한다. 그리고 또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고장도 아니고 조금만 건들면 되는 것도 있는데 그것 조금 해주고 돈 받으려니 낱부끄러우니까 그렇게 한다.

라이센스도 있으니까 그렇게 고쳐도 돈을 주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들어가는 것이 없으면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옛날에 의사들도 환자가 오면 무조건 주사를 주는 의사들이 있었다. 주사라도 주면 사람들이 치료를 해주었다고 생각하는데, 가루약 조금 주고 돈 달라고 하면 이것 주고 돈을 달라고 하나 했다. 그래서 항생제가 남용된 것이다. 이런 우스운 일이 많았다.

왜 자격증이 필요한가? 왜 그 자격증이 국가자격증이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살리기 위해서다. 약을 제대로 써서 살게 하기 위해서다.

성경 안에는 살리는 말도 있고, 죽이는 말도 있다. 말을 하는 사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살리는 것은 우리 일이지만 죽이는 것은 우리 일이 아니라고 생

각한다. 내 일이 아니다. 이것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살리는 것만 내게 맡겨진 일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예수님도 그런 것이다. 자기도 율법으로 볼 때는 이 여자가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사람의 생명이 율법보다 중요하다. 어떻게 살려야 되겠는데 살리려고 하니까 그런 지혜가 나온 것이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이다. 아기를 자르고 싶어서 그렇게 말했겠는가? 진짜 엄마가 누구인가를 가려내기 위해서 한 말이었다.

간음하다 현장에 붙들린 여자의 사건은 특별히 사역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이다. 잘못하면 우리가 사람을 죽이게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잘못하면 실수를 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사정을 잘 모르고 말을 해버리면 그런 결과가 또 온다. 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말 때문에 정신이 돌아버리는 사람도 있다.

사역 초기에 그런 경험을 했다. 그래서 중요한 직책이구나. 아무렇게나 해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구나. 또 나 나름대로는 깊이 생각을 했어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의사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의료사고가 날 수 있다. 아주 조심스러운 사명이다.

내가 지금도 그런 일 때문에 후회되는 일이 있다. 그때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그런 결과가 올지 몰랐다. 만약 내가 그것을 알고 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모르고 했으니 망정이지, 그런데 모르고 한 것도 잘못이다. 모르면 하지 않아야 하는데, 모르면서 했다는 것도 옳은 것이 아니다.

명이가 되려면 사람을 죽이지 않고 명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다른 일도 마찬가지이다. 목회 일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직분은 너무나 귀중한 직분이다. 생명을 맡긴 직분이니까 아주 중요하다. 의사가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코로나19 문제로 사방에서 의사들이 대구로 몰려든다고 한다. 자기 사명을 하기 위해서다. 대구에 오면 자기도 걸릴 수 있는데도 200명이 신청했다고 한다. 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간호사들을 찾고 있다.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탄원서가 백만이 넘었다고 하니까 보통일이 아니고 국가적인 대사건이다. 세월호 사건에서 300명이 죽었는데 대통령을 탄핵했다. 그것이 불발되어 대법원에 올라갔다가 탄원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각되어 그 문제가 국회 창고에 처박혀 있다. 그런데 거기서 촛불이 시작되어 박\*\*은 탄핵을 받았다. 책임이 참 중요하다.

올법과 생명!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살리는 것이 우리 일이다. 설사 올법을 어기는 일이 있더라도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아침에 사랑방을 보니까 미국 발 소식인데 백신이 개발되었다고 연락이 왔다. 백신이 개발되었어도 미국 방식은 실험에 실험을 거듭해야 된다. 인체실험, 임상실험을 3차까지 해야 하는데 거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시판되기까지는 아직 멀었다. 한국계 미국인이 개발을 했다는데,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것이 한 달이 갈지 두 달이 갈지 모른다. 우리 같으면 죽게 되면 대번에 쓰겠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런 것에 굉장히 여유가 많다.

페니실린이 처음 개발되었을 때, 처칠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빨리 공급이 되지 않았다. 2차 세계대전 때 처칠이 폐렴에 걸려 죽게 되었는데, 약이 없으니까 임상실험을 다 거치지 못한 약을 썼다. 다행히 처칠이 살아났기 때문에 페니실린이 유명한 약이 되었다. 지금도 죽을 바에는 죽게 된 사람에게는 써보면 좋겠는데 미국 사람들은 계속 실험을 해서 입증해야 한다. 어떤 때는 참 답답할 때가 있다. 그것이 안전하기는 제일 안전하지만 참 답답할 때가 있다. 나에게 해보라 하면 어차피 죽는데 대번에 해볼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정석이니까 그렇게 할 것이다.

우리는 좌우간 살리는 직분을 맡았다. 그래서 소중하다. 이것을 알면 되겠다. 여러분의 사역에 아름다운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감사합니다.